

# 양친이 안계신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

## 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과교육

석사과정 이 은 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 수 박 성 연

Dept.of Hom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

*Master's course : Lee, Eun Gyoun*

Dept.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Park, Sung Yun*

###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 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00(100girls, 100boys) 5th and 6th grade children from P city in Kyung-gi area.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showed some behavior problems such as aggressiveness, anxiety, developmental disorder, absences from school, bad-habits and attention-seeking behaviors. The parenting behaviors of broken families were characterized as negative, rejective, and inconsistent behaviors. Seco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varied as a function of child sex, care giver, reason of loss and parenting.

**주제어(Key Words):** 양친이 안계신 가정(Broken Families), 정서·행동 문제(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양육태도(Parent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Sung-Yu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c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02-3277-3072 Fax: 02-3277-2852  
E-mail: psy@ewha.ac.kr

## I. 서론

현대사회는 복잡성, 산업화, 도시화 등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 향상은 핵가족의 증가 및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가족 내 부부간 갈등은 가족해체나 양부모가 안계신 가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양부모가 안계신 가정의 주된 원인이 부모의 사망이었으나, 최근에는 특히 별거나 이혼, 미혼모, 방임, 유기 등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2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양친이 안계신 가정 아동의 세대는 66,172세대, 179,618명이고, 소년·소녀가장 아동의 세대는 4531세대, 694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2), 이들 중 모자가 가정의 경우만 보더라도 1993년에는 배우자 사망이 69.4%이고 이혼이 16.3%였으나 2002년에는 배우자의 사망이 56.8%로 줄어들고 이혼의 경우가 29.6%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2). 이들 중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녀 모두, 3539세이며, 이혼 당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7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심각한 것은 이혼 부부의 동거 기간을 통해 자녀가 아동으로 추정되는 동거기간이 15년 미만인 이혼 구성비는 전체 이혼의 73.8%에 다다르고 있다(통계청, 2002). 한편, 매일 약 270쌍 부부의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부모가 안계신 가정의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통계청, 2002), 이혼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부모가 별거 상태에 있거나 사별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러한 가정은 더 많아지리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친이 안계신 가정이란, 부모가 아동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정으로 부모가 사망, 별거, 수형, 이혼 등의 이유로 한 쪽이 영구적으로 부재하는 가정을 말하며 편부, 편모, 고아, 계부, 계모가 포함하는 것(김수길, 1970)으로 정의 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의 아동은 대개의 경우 양부모나 한 부/모가 없는 데서 오는 열등감과 심리적인 불안감, 또는 이혼이나 재혼 등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왜곡된 자극

등이 아동들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양부모 모두가 자녀를 기르지 않는 가정의 경우 남은 한쪽 부모가 아버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수행에서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의 부모는 그릇된 양육태도나 부적응을 나타내고 때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동정심 및 책임감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를 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자녀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한다(유영주, 1987). 특히 감수성이 강한 8-14세 아동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게 된다. 김정호(2002)에 의하면 8~12세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이혼을 제의했다고 생각되는 부모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학교생활에서 분출되기도 하여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부적응 외에도,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양친의 부재는 자녀로 하여금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학습할 대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양친이 안계신 가정 아동은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한편, 열등의식과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사회성이 낮아 친구들에게 회의를적이고,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임영희, 2002).

양친이 안계신 가정의 아동들이 여러 가지 문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습득해야하는 기능들을 배우지 못하고 생활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수적인 아동기인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해 생활습관 습득은 물론 위생과 청결, 영양, 학습 등 전반적으로 성장에 장애를 갖게 된다(허인영, 1999). 한편, 한 부모가 부재하더라도 나머지 한 부모가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내고 감정적으로 동요함이 없이 모친의 역할과 부친의 역할을 잘 조화시킨다면 아동은 도리어 협력적이고 애정적이 되어 자재력도 갖출 수 있으며, 부재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상에 접근 할 대리적인 모델이 있는 경우, 양친이 안계신

가정일지라도 아동의 발달에 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장병림, 1984)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양부모 가정과 양친부재 가정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양부모가 안계신 가정 아동의 문제점이 양부모의 부재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친이 안계신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가정 내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의 일치여부를 들 수 있다. 즉, 동성의 부모가 친권을 가질 때 자녀들이 더 잘 적응한다는 '동성모델 학습이론'(Peterson & Zill, 1986; Downey & Powell, 1993)과 반대 성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성 역할 행동을 제시하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상호보완적 성 역할 이론'(Weiss, 1979)으로 대별되지만, 대체로 동일시 개념을 적용하여 '동성모델 학습이론'으로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여아든 남아든 관계없이, 동성의 부모는 자녀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있고,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녀의 요구에 부합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Downey, 1994; Radine, 1976; Russel, 1978)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동성모델의 학습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가정의 남아는 양부모 가정의 남아에 비해 훨씬 적은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이 경우 성역할 동일시 대상이 없음으로 인해서 남성적 행동을 배울 기회가 적은 한편, 편모는 남아에게 남성다움을 덜 강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는 자기 통제력이 약해지고 도덕성 발달이 저하되며, 비합리적 신념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높은 비행 경향을 보일 수 있다(Hetherington, 1982; Hurlock, 1972; Santrock, 1972; Wallerstein & Kelly, 1980; 김경중, 1982; 김미영, 1989; 김순애, 1987). 모자가정의 여아인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더욱 더 의존적이며, 정서적 문제나 학

교생활에 부적응을 나타내며, 남성과의 접촉을 꺼리는 하지만(임영희, 2002), 사회적 부적응, 정서적 불안과 관련된 신경증적 문제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심각하다(Hurlock, 1972). 또한 부자가정에서 남아는 사랑의 대상을 잃게 되고, 여아는 동일시의 대상을 상실하게 되어 애정으로 인간관계를 맺어 타인과 동일시하려는 능력을 상실하기 쉽다(유안진, 서봉연 1982; 정원석, 이상노, 이성진, 1984). 위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내에서도 양육자와 아동의 성이 다를 경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제적 결핍관점(The economic-deprivation argument)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은 한 부/모 가족구조와 자녀 적응 및 발달사이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부모의 낮은 수입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Krein & Beller, 1988). 이 관점에 근거한 연구들은 가족소득을 통제하는 경우 적응 및 발달에 있어서의 한 부모 가족 자녀와 양부모 가족 자녀 간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McLanahan & Bumpass, 1988). 또한, Simons과 Lorenz, Conger (1990)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한 부모들은 저임금의 육체적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복지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고 이는 부모역할 수행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면, 그는 교육수준이 높을 때 부모역할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찾고 자녀양육 방법에 관한 강의 등을 접하는 기회가 크다고 지적하였다(Simons, Lorenz, Wu 1993).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양부모가 안계신 가정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게서 더 많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양친이 안계시는 원인과 기간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분리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분리가 아동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느껴서 비판, 우울, 움츠러들

과 같은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등을 자녀에게 표출해 버리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도 공격적이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즉, 부모의 별거나 이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들은 자기 정체감의 상실로 타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외로움과 절망감을 가지며, 양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동시에 거부감을 느낀다. 또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적어지며, 내적인 도덕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여 다양한 형태로 물건 훔치기, 거짓말하기, 아기처럼 행동하기 등의 관심 끌기 행동이 나타나고, 학교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다. 또한 어린 아동의 경우는 야뇨증, 대소변 실금증, 손가락 물어뜯기, 몽상 및 잠꼬대 등의 심리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며, 10대의 아동의 경우는 비행이 일어나고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며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박명숙, 1996).

양친이 안계시는 기간 역시 중요하여 많은 학자들이 양친부재 후 2년까지 자녀의 부적응 행동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은정, 1999). 양친부재 이후 2년까지는 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원은 갑작스러운 생활유형의 변화와 한 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구조 내 역할이 변모됨으로써 혼란을 겪고, 사회적 관계와 지지망이 축소됨으로서 스트레스원이 누적되어 우울, 자기비하, 분노, 슬픔, 수치감이 극대화되어 양부모가 안계시는 가정에 대한 적응이 힘들다(Amato & Booth, 1991; Hetherington, 1982; Kitson & Morgan, 1990).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양친부재의 원인이 부/모의 사망보다는 이혼이나 유기 방임일 경우에, 또한 양친부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있는 아동이 더 심각한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양부모가 안계시는 가정에 대한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단순히 양친부재 자체보다는 양친부재 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관적인 태도, 또는 냉정하고 비일관된 양육태도가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주요 원인을 시사하고 있다(Bank, Forgatch, Patterson & Fetrow (1993); 정현숙, 1997; 조홍식, 김인숙, 김혜

란, 김혜련, 신은주, 1997). 즉 한 부모 가정의 양육자는 자기 단독으로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단절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역할과중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제한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할 경향을 높으며, 때로는 상실한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자녀를 학대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적응한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성정현, 1998). 따라서 양친부재 가정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김호연, 1995; 성보옥, 1998; 조명옥, 2002; 천성렬, 2001)은 양부모 가정의 아동과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의 아동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가정의 양부모가 계시지 않는 자체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인 것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의 일치여부, 양친부재 원인, 양친부재 기간,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다르게 나타난다(Hetherington, 1972; 허인영, 1999). 따라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측면의 차이 및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친부재 가정 아동만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외현적 행동문제와 내면적인 정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양친부재 가정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의 일치여부, 양육자, 사회경제적 지위, 양친부재 원인, 양친부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4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양육태도의 척도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를 묻는 14문항으로 구성된 박민선(1999)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고유치 1이상인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제1요인은 애정적 태도 제2요인은 거부/강압적 태도, 제3요인은 비밀관적인 태도로 명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적절치 않은 문항 1개를 제외하였다. 제1요인 애정적 양육태도 문항은 '나에게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잘 들어 주신다'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제2요인 거부/강압적 양육태도문항에는 '그 분이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P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양친부재 가정 아동(평균연령 12.5세) 200명(남아 100명 여아 1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양육자는 대부분 아버지 또는 어머니(79.5%)였고, 비교적 계층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않는 원인으로서는 사망이 21% 이었고, 67% 이상이 이혼이나 별거 이었으며, 가출, 유기, 방임 등도 12%를 차지하였다. 양친부재 기간은 2년 이하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0)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나이	11세	9( 4.5)	양육자의 교육수준	무학	7( 3.5)
	12세	88(44.0)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17( 8.5)
	13세	103(51.5)		중학교 중퇴 및 졸업	26(13.0)
양육자	아버지	43(21.5)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89(44.5)
	어머니	116(58.0)		대학교 중퇴 및 졸업	53(26.5)
	할머니	18( 9.0)		대학원 중퇴 및 졸업	8( 4.0)
	친척 <sup>a</sup>	10( 5.0)	양육자의 직업	행상,가정부,막노동,무직,서비스직종사자	55(27.5)
	기타 <sup>b</sup>	13( 6.5)		가정주부	23(11.5)
양친 부재원인	부/모 사망	42(21.0)		피고용기술자, 사무직	46(23.0)
	별거 또는 이혼	134(67.0)		자영업, 점원, 판매원	66(33.0)
	기타 <sup>c</sup>	24(12.0)		전문직, 과장급 이상 공무원/회사원	10( 5.0)
양친 부재기간	2년 이하	94(47.0)	가정 경제수준 <sup>d</sup>	상	45(22.5)
	3~4년	44(22.0)		중상	72(36.0)
	5~9년	42(21.0)		중하	48(24.0)
	10년 이상	20(10.0)		하	35(17.5)

a) 친척 : 고모, 이모, 숙모 등

b) 기타 : 시설 보육사

c) 기타 : 가출, 유기, 방임

d) 가정의 경제 수준 : 양육자의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분류 (이숙, 1988)에 근거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신다.' '화가 나면 나에게 자주 화풀이를 하신다.'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제3요인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에 관한 문항은 '나를 많이 도와주시면서 어떤 때는 혼자 못하는나고 꾸짖으신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써 강압/거부적 양육태도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의 요인에 대한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을 주었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의 요인에 대한 문항에는 역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비애정적이고, 강압/거부적이며, 비일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0 \sim .92$  범위였다.(<표 2>참조)

## 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척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아서 재검사 신뢰도는 .89, 검사자간 신뢰도는 .72로 보고되고 있으며(Rutter, 1967), 황혜정(1997)이 한국에서의 그 구성내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Rutter(1967)의 교사용 Child's Behaviour Questionnaire(CBQ)를 사용하였다. 교사용 CBQ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26문항으로 되어 있고, 교사가 각 문항에 대해 0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주어 전체 합산한 점수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데,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래 교사용 CBQ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임상적인 심각성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점수를 9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4점 주어 본래의 판별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평균을 이용하여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척도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내용적으로 적절치 않은 2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으로 보아 제1요인은 공격행동(예: '싸운다.' '화를 잘 낸다.'), 제2요인은 불안·우울(예: '우울해 한다.' '불안해한다.'), 제3요인은 발달장애(예: '말을 더듬는다.' '학교에서 옷에 소변 또는 대소변을 본다.'), 제4요인은 결석행동(예: '사소한 이유로 결석을 한다.'), 제5요인은 습관적행동(예: '손가락을 빨다.'), 제6요인은 관심끌기(예: '거짓말을 한다.')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66~.84로 비교적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경기도 P시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먼저 5, 6학년 대상아동에게 2002년 12월 2일14일 까지 약 12일 동안 197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조사서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친구들에게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인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 6학년 담임선생님을 통해 교실에서 양부모 가정의 아동과 같이 아동용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용 설문지를 통해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않는 가정의 아동으로 나타난 아동 224명을 조사대상자로

<표 2>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양육자의 양육태도 척도	문항수	신뢰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척도	문항수	척도
비애정적 요인	5	.92	공격행동	6	.83
거부/강압적 요인	5	.74	불안·우울	6	.84
비일관적인 요인	3	.60	발달장애	4	.70
			결석행동	3	.66
			습관적행동	3	.71
			관심끌기	2	.69

선정하였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동을 살펴보신 담임 선생님께 이들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묻는 교사용 설문지를 부탁한 후 2~3일 후에 회수하였다. 57명의 교사가 1인당 평균 4명의 아동을 평가하였으며, 조사자료 중 한 가지 이상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양친부재 가정의 아동 남녀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에는 기술통계치인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고 F검증,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 여부, 양육자,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친이 안계시는 원인, 양친이 안계시는 기간)에 따른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여부, 양육자의 성,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친이 안계시는 원인, 양친이 안계시는 기간에 따른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첫째, 아동 성과 양육자 성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는 양육자의 성과 아동의 성이 다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행동요인에서는 양육자가 여성이고 아동이 남아인 경우(M=2.13)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다음은 양육자가 남성이고 아동이 여아인 경우(M=1.88)로 나타났다.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 발달장애, 습관적 행동, 관심끌기에서도 양육자의 성과 아동의 성이 불일치 할 때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내었다.

둘째,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양육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집단과 그리고 할머니, 친척(이모, 고모, 숙모), 기타(시설 보육사)인 집단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다르게

나타났다. Duncan검사를 통한 집단차이의 사후검증 결과, 양육자가 친척이나 기타인 집단의 경우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집단의 경우 보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행동과 발달장애의 경우, 양육자가 친척이거나 기타인 집단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집단 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었다.

셋째,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모든 정서·행동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적었다. 이는 <표 3>에서 보듯이, 공격행동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인 집단(M=2.15)이 상인 집단(M=1.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밖에 불안·우울, 발달장애나 결석행동의 경우에는 하인 집단과 상인 집단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고, 습관적행동이나 관심끌기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보다 나머지 집단(하, 중하, 중상)에서 특히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었다.

넷째,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않게 된 원인에 따라서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차이가 있었다. 즉, 공격행동, 불안·우울, 발달장애, 결석행동, 습관적 행동, 관심끌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보다 별거/이혼 또는 기타(가출, 유기, 방임)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격행동의 경우 양친부재 원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인 집단(M=1.46)보다 기타(가출, 유기, 방임)인 집단(M=2.01)에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 밖에 불안·우울행동과 발달장애, 관심끌기에서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보다는 유기, 방임, 가출 등의 기타인 경우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석행동이나 습관적행동의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집단보다는 이혼이나 별거한 집단과 기타인 집단에서 특히 높았다.

다섯째,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양부모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양친부재 기간이 0~2년, 그리고 10년 이상인 경우에 공격행동, 발달장애, 결석행동, 습관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 여부, 양육자,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친이 안개시는 원인, 양친이 안개시는 기간)에 따른 양친이 안개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N=200)

사회인구학적 변인	공격행동		불안·우울		발달장애		결석행동		습관적행동		관심끌기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b>양육자의 성과 아동의 성(N)</b>												
남 <sup>a</sup> /남(17)	1.71	b	2.06		1.17	a	1.41		1.36	a	1.31	a
남 <sup>a</sup> /여(26)	1.88	b	2.07		1.29	b	1.53		1.51	b	1.53	b
여 <sup>b</sup> /남(83)	2.13	c	2.04		1.12	a	1.57		1.54	b	1.55	b
여 <sup>b</sup> /여(74)	1.38	a	1.93		1.08	a	1.39		1.32	a	1.35	a
F	4.70***		0.42		2.08*		1.80		2.12*		2.07*	
<b>양육자(N)</b>												
아버지(43)	1.93	ab	1.96	a	1.51	b	1.45		1.45	a	1.51	a
어머니(116)	1.67	a	1.91	a	1.13	a	1.42	1.37	a	1.38	a	
할머니(18)	1.98	ab	2.46	b	1.54	b	1.56	1.63	ab	1.47	ab	
친척 <sup>c</sup> (10)	2.12	b	2.50	b	1.65	bc	1.43	1.62	ab	1.70	ab	
기타 <sup>d</sup> (13)	2.10	b	2.54	b	1.71	c	1.54	1.89	b	1.81	b	
F	4.67***		4.16**		4.37**		0.13		2.61*		2.78*	
<b>사회경제적지위(N)</b>												
상(45)	1.69	a	1.75	a	1.08	a	1.32	a	1.35	a	1.26	a
중상(72)	1.73	a	1.73	b	1.20	ab	1.44	ab	1.40	b	1.42	b
중하(48)	1.70	a	2.39	b	1.37	b	1.51	ab	1.41	b	1.48	b
하(35)	2.15	b	2.54	c	1.30	b	1.71	a	1.67	b	1.48	b
F	5.15***		4.20***		2.29*		2.87*		3.42**		2.78*	
<b>양친부재원인(N)</b>												
부/모 사망(42)	1.46	a	1.93	a	1.10	a	1.26	a	1.23	a	1.28	a
이혼/별거(134)	1.79	ab	2.01	ab	1.24	ab	1.51	b	1.46	b	1.39	ab
기타 <sup>e</sup> (24)	2.01	b	2.33	b	1.42	b	1.66	b	1.57	b	1.85	b
F	4.17***		3.66**		3.41*		3.34*		2.28*		3.94**	
<b>양친부재기간(N)</b>												
0~2(94)	1.92	b	2.13		1.44	b	1.66	b	1.54	ab	1.48	ab
3~4(44)	1.59	a	1.89	1.71	a	1.20	a	1.29	a	1.29	a	
5~9(42)	1.59	a	1.98	1.12	a	1.33	ab	1.29	a	1.38	ab	
10년이상	1.85	b	2.02	1.43	b	1.57	ab	1.62	b	1.60	b	
F	6.24***		1.21		2.23*		3.83**		2.14*		2.52*	

\*p&lt;.05, \*\*p&lt;.01, \*\*\*p&lt;.001

a) 남자 : 아버지인 경우

b) 여자 : 어머니가 주이며, 할머니 친척(고모, 이모) 보육사 선생님을 포함

c) 친척 : 고모, 이모, 숙모 등

d) 기타 : 시설 보육사

e) 기타 : 가출, 유기, 방임

적 행동, 관심끌기 등 대부분의 정서·행동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공격행동, 발달장애와 습관적 행동의 경우, 3년~9년 사이의 집단(M=1.59)은 0~2년

인 집단, 10년 이상인 집단과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으며, 결석행동의 경우에는 3년~4년 사이의 집단보다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훨씬 더 높았다. 또한



결석행동에서는 3년~4년 사이의 집단과 0년 미만~2년인 집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2.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른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우선 양육자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F 검증과 사후검증을 통해 알아본 후, 각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의 양육자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표 4>에서 보듯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집단에서보다 할머니, 친척, 기타의 집단에서 양육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친척(M=2.06)과 기타(M=2.09)인 집단이 어머니인 집단보다 훨씬 더 비애적인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거부/강압적인 요인과 비일관적인 요인에서도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다.

2)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상관관계

양친부재 가정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상관관계, 양육자의 비애정적인 양육

태도, 거부/강압적인 양육태도,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 중에서도 비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불안·우울과 r=.4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부/강압적 양육태도는 공격행동(r=.30, p<.001)과 불안·우울(r=.26, p<.05), 관심끌기 행동(r=.24,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행동(r=.19, p<.01)과 불안·우울(r=.22, p<.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5)참고>

3.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 대적 영향력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양친부재가정 아동의 공격행동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부/강압적 양육태도( $\beta=.27$ )와 성별 일치( $\beta=-.27$ ), 다음으로는 양친부재 원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beta=-.25$ )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강압/거부적이고, 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이 불일치 할 경우 아동의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나며, 유기나 방임 등으로 인해 양 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경우, 공격적 행동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불안·

<표 4>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의 양육자에 따른 양육태도

(N=200)

양육자(N)	비애정적			거부/강압적			비일관적		
	평균	(SD)	DMR	평균	(SD)	DMR	평균	(SD)	DMR
아버지(43)	1.57	(0.48)	a	1.62	(0.69)	a	1.78	(0.59)	a
어머니(116)	1.52	(0.40)	a	1.55	(0.65)	a	1.77	(0.54)	a
할머니(18)	1.72	(0.61)	b	1.58	(0.66)	a	2.07	(0.71)	b
친척 <sup>a</sup> (10)	2.06	(0.80)	c	1.87	(0.68)	b	2.00	(0.76)	b
기타 <sup>b</sup> (13)	2.09	(0.83)	c	1.91	(0.76)	b	2.03	(0.73)	b
F값	6.47***			5.11***			4.25***		

\*p<.05, \*\*p<.01, \*\*\*<.001

a) 친척: 고모, 이모, 숙모 등

b) 기타: 시설 보육사

<표 5> 양친이 안개시는 가정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상관관계

(N=200)

	1	2	3	4	5	6	7	8	9
<b>양육태도</b>									
1. 비애정적양육태도									
2. 거부/강압적양육태도	.41***								
3. 비일관적인양육태도	.20***	.34***							
<b>정서·행동문제</b>									
4. 공격행동	.24***	.30***	.19***						
5. 불안·우울	.42***	.26***	.22***	.48***					
6. 품행장애	.16**	.09	.13**	.38***	.48***				
7. 결석행동	.17**	.15**	.15**	.42***	.37***	.44***			
8. 습관행동	.17**	.16**	.10*	.42***	.45***	.45***	.41***		
9. 관심끌기행동	.17**	.24***	.12*	.65***	.40***	.35***	.32***	.37***	

\*p<.05, \*\*p<.01, \*\*\*p<.001

<표 6> 양친이 안개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N=200)

독립변수		공격행동	불안·우울	발달장애	결석행동	습관적 행동	관심끌기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성별</b>	일치	-.27***	-.27***	-.16*	-.09	-.20*	.19*
<b>사회경제적지위</b>	.06	-.01	.01	-.03	.00	.07	
<b>양친부재원인<sup>b</sup></b>							
	부/모사망	-.25*	-.25*	-.10	.02	-.04	-.30**
	별거/이혼	-.12	-.25*	-.11	.00	.02	-.29**
<b>양친부재기간<sup>c</sup></b>							
	2년 미만	.08	-.06	.05	.13	.00	-.04
	3년~9년	-.08	-.03	-.03	.00	-.07	-.08
<b>양육자<sup>d</sup></b>	부/모	-.04	.11	.03	-.03	-.04	-.07
<b>양육태도</b>							
	비애정적	.08	.42***	.12	.02	.10	.02
	거부/강압적	.27**	-.01	-.04	.04	.07	.20*
	비일관적	.04	.22**	.09	.10	.01	.02
	상수	1.37	1.35	1.18	1.26	1.40	1.64
	R <sup>2</sup>	.23	.26	.05	.05	.06	.15
	F	5.62***	6.59***	1.00	1.06	1.09	3.39***

\*p<.05, \*\*p<.01, \*\*\*p<.001

- a) 성별 일치: 아동과 양육자의 성이 불일치 할 경우를 0, 일치 할 경우를 1로 가변수 처리함.
- b) 양친 부재 이유 : 기타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를 0, 부/모의 사망을 1, 이혼/별거를 2로 가변수 처리함
- c) 양친 부재 기간 :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상을 0, 2년 미만을 1, 3년9년 이하를 2로 가변수 처리함
- d) 양육자 : 부모가 아닌 우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가 아닌 경우를 0, 부모인 경우를 1로 가변수 처리함

우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비애정적인 양육태도( $\beta=.42$ ), 성별 일치( $\beta=-.27$ ), 양친부재 원인이 사망이나 이혼인 경우( $\beta=-.25$ ),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beta=.22$ )의 순으로 나타나,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은 양육자의 비애정적이고 비 일관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의 불 일치 그리고 양친부재 원인이 사망 및 별거나 이혼 보다는 유기나 방임 등으로 인해 양부모가 안개시

는 경우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발달장애와 습관적 행동은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며, 관심끌기는 양친부재 원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beta=-.30$ )보다는 별거나 이혼( $\beta=-.28$ ) 또는 기타인 경우일수록,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 $\beta=-.16$ )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석 행동과 관심끌기를 제외하고는 공격행동과, 불안·우울, 발달장애, 습관적 행동에서,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이 불일치할수록, 양육자의 태도가 비애정적, 강압/거부적, 비밀관적일수록, 또는 양친부재 원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혹은 별거나 이혼보다는 기타인 경우에 아동의 정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양부모가 안계시는 가정 아동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친부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보면, 우선, 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의 일치여부는 불안·우울과 결석행동을 제외하고 모든 정서·행동 요인에서 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의 불일치 할 경우 높은 문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 행동 문제에 관한 연구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성별 그 자체가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양육자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동성모델의 학습이론'(Peterson & Zill, 1987; Downey & Powl, 1993)을 지지한다.

또한 양육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닌 경우에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않는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양육하지 못하고 친척을 포함한 다른 양육자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내현적으로나 외현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쪽 부모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양육태도가 더 비밀관적이고 비애정적이며 거부/강압적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부모가 안계시는 가정에서 한 부모에게라도 아동이 양육되는 경우보다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육될 경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이 해체되더라도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아동을 양육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한편,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의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을수록 아동은 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었다. 이는 Krein와 Beller(1988), Simon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양친부재 가정은 자녀에게 투자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게 될수록 이것이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않는 원인으로 중요한 변인으로써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보다는 이혼 또는 별거에서, 이보다는 유기나 가출등 기타 원인에서 양친부재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Wallerstein과 Kelly(1980), 박명숙(1996) 최선애(1984)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결국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해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의 아동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부모가 안계신 가정 아동 중에서도 양친부재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에 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Amato와 Booth(1991), Hetherington 등(1982), Kitson와 Morgan (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아동은 양친부재 이후 2년까지는 갑자기 변화된 생활

유형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활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친부재 이후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너무 어린 시기에 가정의 양친부재를 경험한 아동은 부적응 현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비애정적이고, 거부/강압적이며, 비밀관적일수록 아동은 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들(박수정, 1998; 김경희, 황혜정, 1998;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양친부재 가정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정서·행동문제 각각에 따라 다소 달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동문제의 경우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여부, 양친부재 원인,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행동이나 습관적 행동에서는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여부만이 중요변수로 나타나 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이 불일치 할 경우 두드러졌고, 공격적 행동이나 불안/우울, 관심끌기 행동은 상대적으로 아동의 성과 양육자의 성이 불일치할수록, 양육자의 태도가 비애정적, 거부/강압적, 비밀관적일수록, 또한 양친부재 원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보다는 별거나 이혼, 그 보다는 기타인 경우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볼 때,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으로 인한 아동의 여러 가지 정서·행동 문제들은 양부모가 안계시는 그 자체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과 양육자 성의 일치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육될 경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가정이 해체되더라도 되도록 부모 중 한 명은 가정에 남아 자녀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동이 양친부재 직후부터 2년까지 가장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보인다는 본 연구 결과는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직후 빠른 심리적·정서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양친부재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양부모가 안계시는 원인에 따른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P시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는 교사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부모가 안계시는 가정 아동에 대한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친이 안계시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양부모가정과 양친부재 가정을 단순히 비교하는 대신, 양친부재 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양육자의 양육태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양친이 안계시는 가정 아동에 대한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김경중(1983). 부친 부재와 자녀의 인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1(1), 12-26.
- 김미영(1989).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길(1970). 한국 소년범죄의 사회요인에 관한 연

- 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애(1987).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2002). 결손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에 대한 문화적 기술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연(1995).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자녀의 성격 특성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1996).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 교육에 관한 고찰: 이혼 가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2, 283-310.
- 박민선(1999). 경제 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2). 보건복지통계연보.
- 성보옥(1998). 일반가정 자녀와 결손가정 자녀의 정서문제 비교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현(1998). 성역할 태도와 이혼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 서봉연(1982). 인건발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영주(1987). 신가족관계학. 서울: 법문사.
- 임영희(2002). 아동의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결손 가정 아동의 정의적 성격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병림(1984). 아동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1984).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현숙(1997).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 변인. 학생생활연구, 10, 47-61.
- 조명옥(2002).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요인 및 정서 요인 비교.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천성렬(2001).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 비교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애(1984). 부모의 부재가 정서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1999). 이혼 시 모의 자녀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 허인영(1999). 빈곤 결손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 가출 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1997).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행동목표(CBQ)의 사용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1, 91-113.
- Amato, P. R., & Booth, A. (1991). The consequence of divorce for attitudes toward divorce and gender role. *Journal of Child Family Issue*, 12(3), 306-322.
- Bank, L., Forgatch, M. S., Patterson, G. R., & Fetrow, R. A. (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 Mediators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137-151.
- Downey, D. (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 single father families. *Journal of Child Family Issue*, 15(1), 129-147.
- Downey, D., & Powell, B. (1993). Do 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fare better living with same-sex parents. *Journal of Child Family Issue*, 55, 55-71.
- Hetherington, E. M. (1972). Effect of father absence on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t daughter. *Developmental Psychology*, 7(2), 313-326.
- Hetherington, E. M. (1982). *Effects of parents and*

- children :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Michael, L.(Ed), Hillsdale, N.Y : Lawrence Erlbaum.
- Hurlock, E. B. (1972). *Child development*. N.Y : McGraw-Hill.
- Kitson, G. C., & Morgan, L. A.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3-924.
- Krein, S. F., & Beller, A. H. (1988). Educational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Differences by exposure, gender and race. *Demography*, 55, 221-224.
- McLanahan, S., & Bumpass, L. (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30-152.
- Per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adine, H. (1976). *The role of the father cognitive, academic & intellectual development.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In M. E. Lamb(Ed.), N.Y : Wiley & sons
- Russel, G. (1978). The father role and its relation to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Child Development*, 49, 1174-1181.
- Rutter, M. (1967). A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8, 1-11.
- Santrock (1972). Relation of type and on set of father absence to cognitive. *Development Child*, 43, 455-469.
- Siomns, R., Lorenz, F., & Conger, R. (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75-392.
- Siomns, R., Lorenz, F., & Wu, C.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368-381.
- Wa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London: Grant McIntyre.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Weiss, R. S. (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97-111.

(2004년 4월 29일 접수, 2004년 10월 5일 채택)